

# 1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 ■ ■ 성인남성흡연율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져!

- 2010년 12월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9.6%로 낮아져 최초로 3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09년 12월의 43.1% 보다 3.5%p 감소한 수치로 밝혀졌다.
  - 특히 40대 남성의 흡연율이 2010년 상반기 50.0%에서 43.4%로 6.6%p 낮아졌고, 50대 남성은 41.5%에서 31.3%로 10.2%p 낮아진 것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30대 남성의 흡연율은 48.5%에서 52.2%로 3.7%p 상승하였고, 20대 남성은 38.2%에서 40.9%로 2.7%p가 상승하여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연지원 및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10년 12월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2009년 말 3.9%에서 2.2%로 1.7%p 대폭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러나 29세 이하 여성의 흡연율이 5.8%로 나타나 여성 흡연자의 대다수가 젊은 여성으로 이들에 대한 흡연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는 흡연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1) 흡연자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점과 (2) 금연환경 조성(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0.8월 시행), (3) 금연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금연홍보활동(Self하지 말고, Help 받으세요!)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 ※ TV광고 등 홍보·캠페인을 주력했던 1월, 5월, 9월 이후 금연상담전화 신청건수 증가

2010년 금연상담전화 신청건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7,773	1,964	2,894	1,424	3,692	1,565	1,374	1,296	3,460	4,492	2,868	6,328

\* 2010년 12월 상담신청 및 정보이용건수는 12월 20일(월) 기준임.

- 흡연자의 흡연 실태를 보면,
  - (흡연빈도) “습관적 흡연자”는 지난 상반기(‘10. 6월)보다 높아지고(95.0%, 2.9%p ↑), “간헐적 흡연자”는 낮아진(5.0%, 2.9% ↓ p)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습관적 흡연자: 흡연자 중 매일 최소한 한 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
  - (흡연이유) 스트레스(29.4%→26.2%)보다는 습관이 되어서(61.7%→67.4%)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자가 상반기보다 더 증가하였다.
  - (흡연연령) 최초흡연연령(21.1세)과 규칙적 흡연시작연령(21.6세)과의 차이가 크게 적어 흡연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흡연이 습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금연시도 이유) 현재 흡연자의 58.1%가 주로 건강이 나빠져서(72.5%)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여성의 금연 시도율(52.9%)이 상반기(45.2%) 대비 높아졌다.
  - (금연실패 이유) “스트레스” 때문에 금연에 실패했다는 의견이 32.5%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조사보다는 7.6%p 하락하였다.
    - 특히, 의지 부족(14.6%→25.3%)과 습관/중독(13.9%→22.9%)으로 실패한 경우가 증가하였다.
  - (향후 금연계획) 흡연자의 62.3%가 금연의향이 있으며, 여성(29.4%)이 남성(16.5%)보다 6개월 내 금연의향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 효과적인 금연정책에 대한 응답은,
  - (1) 금연구역 확대(22.8%), (2) 담배가격 인상(19.0%), (3) 흡연단속 및 처벌강화(17.5%), (4) 금연캠페인 및 홍보(16.3%) 순으로 나타났다.
  -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을 감소에 49.3%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고, 금연의향가격이 평균 8,055.6원(상반기 대비 455.2원 낮아짐)으로 높게 나타나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 보건복지부는 성인남성흡연율을 선진국 수준(OECD 평균 15세 이상 남성흡연율 27.3%, '08)으로 낮추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비가격규제 정책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에 주말을 2회 포함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표본오

차±1.79%, 95% 신뢰수준)

- 금연상담 및 관련 정보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 금연상담전화(1544-9030),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or.kr)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사회보험 징수통합 본격 시행에 돌입

### 1. “사회보험 징수통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으로 일원화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의 모든 시행준비를 완료하고 금일(2011.1.3 8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개통하면서 징수통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되었다.
- 정부는 지난 십 수년 간의 사회보험 효율화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2008년 8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2008.8.11)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징수통합의 주관부처로써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비롯 「노사정실무협의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동부 및 각 공단, 노조 간 협력 하에 징수통합관련 법률의 개정, 징수 업무와 조직의 재설계, 인력의 재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징수통합 시행 준비에 매진해 왔다.

### 2. 이를 위해 “징수통합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개통 했습니다”

- 징수통합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준비해 온 징수통합 정보시스템을 금일(2011.1.3 8시) 정상적으로 오픈하였다.
- 건강보험공단은 양 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과 협력하여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및 각 공단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간 5차례의 시험운영(7차례의 자료전환시험 포함)과 2차례의 전개 리허설을 거쳐 금일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였다.
- 이를 위해 3개 공단은 지난 2010.12.31.(토) 18:00 부터 2011.1.3.(월) 08:00까지(62시간) 4대 사회보험 징수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수신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 가동)하고, 각 공단의 징수관련 프로그램과 자료를 건보공단 징수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일련의 전개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 금번 전개작업은 응용프로그램 15,973본(건보공단: 13,380, 국민연금: 1,919, 근로복지:

- 674과 전환자료 391억건을 62시간이내에 새로운 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으나,  
 - 연말연시 휴일을 반납한 3개 공단의 본부 직원 200여명과 각 지사 직원들의 일사불란한 역할 수행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 3. 그 결과, “징수통합 서비스가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 업무 효율화와 국민편의 향상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징수통합이 시행되면 각 공단과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가 간결해 지고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 질 전망이다.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의 주관부서) 각 공단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민원업무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전국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디에서든지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진다. 다만 보험료의 자격 및 부과 결정은 기존대로 각 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에 의뢰해야 한다.
- (고지서 합병 발송)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들에게는 통상 4개의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고지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2개의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를 한 개의 봉투에 동봉하여 고지한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 중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통합고지에 따른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시켜주기로 하였다.
- (납부방식의 확대) 178개 지사 방문 수납을 비롯해 기존의 자동이체, 표준OCR 이외에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무고지 납부, 편의점 납부, 민원포털에 의한 납부 등으로 납부방식을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기타 부과방식의 일원화) 징수업무 일원화와 더불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과 방식을 자진신고납(년납)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처럼 매월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하는 월부과고지납(월납)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금년 3월 말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으로부터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해당 보험료를 월별로 산출하고 그 고지금액을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제공 서비스 '희망리본프로젝트' 7개 시·도로 확대

- 보건복지부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시범사업 지역을 종전 4개 지역(부산, 인천, 경기, 전북)에서 7개 지역(대구, 광주, 강원 추가)으로 확대하고, 참여인원 4,000명에 대해 좀더 밀착된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취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기관 성과급을 지급하여 취업유지율을 제고하고, 사례관리에 대한 평가·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취·창업률(36.1%)은 기존 자활사업의 취·창업률(17%)보다 두 배 이상이 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희망리본프로젝트 개요

- 「희망리본프로젝트」: 저소득층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행기관에게 성과급을 주는 시범사업
  -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는 최대 1년간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교육과 취업처 알선을 받고, 자녀나 간병 등 생활여건이 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음
  - 심층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의사 및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이 이루어지며, 동행면접은 물론 성공적인 직장생활 적응 등을 위한 취업 후 사례관리도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특징
  - \* 참여자 상황에 따라 근로의욕 회복부터 직업교육,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지원

-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은 2월 말까지 7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 근로능력이 미약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 한편, 지역별로 1년에 한번씩 「희망리본프로젝트」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와 일자리 나눔을 실천을 기업들에 대한 격려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1월 14일(금) 18시에는 인천지역에서 희망리본프로젝트 가족음악회를 개최하며,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참석하여 격려할 예정이다.

## ■ ■ ■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 줄어든다

-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 서비스 확대 -

-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07년부터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오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로써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지원대상자 확대: '10년 688명(16억원) → '11년 2,500명(40억원)
-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이 돌봄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이다.
    - 파견된 돌보미는 장애아동에 대해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4,155천원) 가정이면 신청가능하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1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3,043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 '10년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아동의 연령은 만6~11세가 41%, 만12~17세가 37%를 차지하였으며,
  - 이용사유는 양육보조(44%), 직장근무(29%), 여가활동(10%)의 순이었으며, 이용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51%), 뇌병변장애(29%), 자폐성장애(1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대상자는 1~2급 중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 장애아동 부모의 질병치료 등 급박한 지원 필요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시·도 배정 사업량 중 10~20%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 \* 긴급돌봄서비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등 긴급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입는 가정을 늘리고 만족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 ■ ■ ■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풀어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 발굴하여 금년 중에 실행한다고 밝혔다.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는

- 보육시설 평가 등급·세부 점수 공개, 장애인 운전면허 순회교육, 취업 중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 24시간 배치,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률 상향조정 등
-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 개선,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금년 중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실천적인 과제들로,
-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 시기별 분류: 1/4분기 49개, 2/4분기 25개, 3/4분기 17개, 4/4분기 16개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서민생활 구석구석까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는 의미로 과제수는 101개 이상임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대표과제>

이동	노인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평가 등급, 세부 점수 공개(12월)</li> <li>– (기존) 평가인증 받은 시설 명단만 공개</li> <li>• 보육료 신청/결과 확인 인터넷 서비스 개시(9월)</li> <li>•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휴직전월 보수월액의 50%→60%로 상향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되기 전! 미리 장기 요양등급 판정신청(2월)</li> <li>• 민간기업 시니어인턴쉽 (3천여명) 도입(3월)</li> <li>– 기업이 노인인턴 채용 시 실습 훈련비 등 매칭 지원</li> <li>• 국민연금 노후설계 컨설팅(재무/건강/여가) 지원(4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확대(2.4천억→5천억)(1월)</li> <li>–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로 변경</li> <li>• 장애인 운전면허연습장 및 순회교육 운영(4월)</li> <li>• 시각 장애인 의약품 복용 정보 접자책 발간(4월)</li> </ul>
저소득층	의료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확대를 위한 과표재산 범위 상향 조정(1월)</li> <li>• 정부양곡배달 사전 알림 서비스 도입(6월)</li> <li>• 취업 중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병원 일반병상 배치 확대(50→70%)(1월)</li> <li>•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 24시간 배치(7월)</li> <li>•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 수수료 표준화(8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사회보험 납부방법 다양화(신용카드, 모바일, 편의점 등)(1월)</li> <li>• 화재·부도·압류세대의 건강보험경감률 상향조정(1월)</li> <li>– 20% → 30%로</li> </ul>

※ (참고 1)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대표과제 예시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경제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서민 생활에까지 복지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 큰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 과제발굴은 서민희망본부를 중심으로 '10년 10월~'11년 1월, 4개월간 현장 종사자\* 의견청취, 현장방문, 129 및 유관기관 콜센터의 접수민원 등을 통해 복지부 각 부문에서 이루어졌고,
  - \* 서민희망모니터링단: 정책 모니터링 및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시도·민간 사회복지기관의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100인 내외로 구성('10.11월)
  - \* 현장방문 실적: 장관 47회, 간부진 130회
  -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신설('10.9월)한 서민희망본부가 총괄하여 최종적으로 107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 참고로 일부과제(27개)는 복지부 2011년도 연두업무보고(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에도 포함되어 후속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 등 발굴기간 중에 이미 시행된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 복지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 국민들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평가하게끔 하고, 그 결과를 서민희망 블로그(<http://hope.mw.go.kr>),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 101가지 정책의 모든 현장을 향후 100일간 장관이 직접 방문(100일 릴레이 현장방문)하여 실천과 정책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 「101가지 희망찾기」와 관련한 첫 번째 현장으로 직장보육시설(한전 빛사랑어린이집, 서울 삼성동 소재)을 방문한다.
    - 장관이 직접 아동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 영유아의 부모·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시간연장보육서비스 확충,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온라인을 통한 보육료 신청 등의 정책을 소개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국민의 신뢰와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101가지 과제 외에도 현장소통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 ■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 해야

- 2011년부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강화되어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함에 따라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전년도 대비 약 두배에 달하는 최대 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10년까지는 18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품으로 한정하고 품목에 따라 5~20%를 우선 구매토록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품목에 관계 없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제도 변화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의 매출 신장은 자연스럽게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 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장애인 생산품 매출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장애인 생산품 제조 현장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에텐하우스(경기도 파주 소재)를 방문하여 품질과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 자리에서 진수희 장관은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10년 예산 119억 대비 104% 증액된 24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장관은 제조 과정을 둘러보고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사는 것이야말로 장애인복지의 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선구매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진수희 장관과 직업재활시설 담당자, 에텐하우스 종사자, 근로장애인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되었다.
- 진수희 장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가 잘 정착되도록 좀 더 노력할 것이니 직업재활시설도 온정주의적인 보호속에 안주하지 말고 ‘에텐하우스’처럼 적극적인 경영과 아이템 발굴로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이상의 소득을 올려주는 모범적인 시설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아직까지 직업재활시설의 임금 수준은 경쟁고용시장에 비해 많이 낮지만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에텐하우스’를 비롯하여 제과·제빵 ‘애덕의 집’, 가구를 만드는 ‘청음공방’, 고급모자를 만드는 ‘동천’ 등 몇몇 우수 직업 재활시설에서 상당수의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일을 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를 주는 복지시설로 전국에 394개소(10년 상반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선구매제도 외에도 전국 16개 시도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설치하여 판매망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 판매시설과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홈페이지 (www.kavrd.or.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수 및 임금 현황〉**

(단위: 개소, 명, 천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시설 수	238	244	319	339	364	384	394
근로장애인 수	7,486	7,684	9,481	10,059	10,422	11,048	11,282
월 평균임금	152	183	202	217	238	257	277

□ 진수희 장관은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나오면서 정책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친서민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진수희 장관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한 「101가지 서민희망약속」을 발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100일 릴레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현장의 소리를 듣고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 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go.kr>) 오픈**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검증된 건강·의료 관련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One-Stop으로 제공하는 「국가 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go.kr>)」서비스를 1.31(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인터넷 등에 범람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건강정보와 잘못된 의료정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 '0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및 148개 전문의협회가 공동으로 질병정보 등 다양한 건강정보콘텐츠를 쉬운 용어와 풍부한 사진자료, 애니메이션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개발된 건강정보 콘텐츠 450여종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 및 소비자 평가단 감수를 거쳐 보건복지부 로고 및 대한의학회 심의필증을 발급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 건강담기(콘텐츠 퍼가기), 자동 업데이트 등 최신 기능을 적용하여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등으로 쉽게 담아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또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료기관 현황정보, 수술종류별/병원별

진료비 정보, 항생제 처방률/제왕절개 수술 등 의료기관 평가결과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정보포털 개발로 잘못된 의료서비스 이용, 약물오남용 등 국민들의 건강위험 요소들이 크게 감소되고, 불필요한 건강 염려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알기 쉽고 정확한 건강정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정보 인식능력(Health Literacy)”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고 질병을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치의학(‘11년)·한의학(‘12년) 분야 등 검증된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1.31(월)부터 방송·신문·지하철광고 등 다양한 홍보와 더불어 “국가건강정보포털 - 가족과 함께 올바른 건강정보 찾기” 퀴즈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올바른 건강정보 찾기”퀴즈는 1.31(월)부터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go.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패드, 혈압계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 ■ ■ ■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지원

□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1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원수	3인 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5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7인 이상 가구: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연령에 따른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금액(월)	394천원	347천원	286천원	197천원	177천원	177천원

\* 영아(만0~2세)의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0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115천원)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2011년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 되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 여야 하며, 만5세아의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된다.
  - '10년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육료를 지원하여 소득하위 50% 이하는 전액지원 받았지만,
  - 소득하위 50~70% 가구의 경우는 정부지원단가의 60~30% 차등하여 지원 받았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였다.
  - 지난해에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하였는데
  - 금년에는 이를 더 확대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줌으로써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 약 27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여 긍정적인 출발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 지원 확대로 약 6천명의 다문화 아동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회통합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인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대상: 0~5세 약 20명).

**〈보육료 지원 신규신청 안내〉**

-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보육료 신청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